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정부 3.0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김정균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이한규	042-481-5322
	2016년 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16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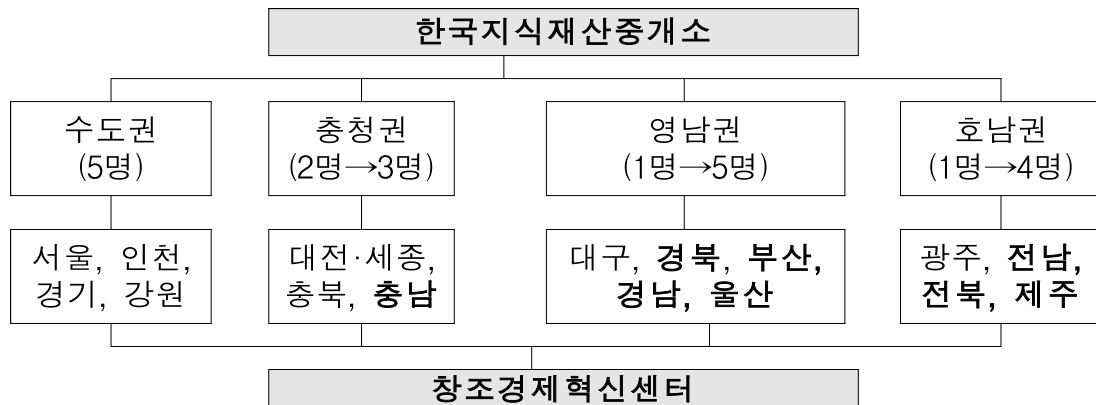
특허 이전·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들이 도와드립니다.

'06년부터 게임기 및 학습기 개발·판매업을 하던 중소기업 펀진(Funzin)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국발명진흥회 소속의 특허거래전문관을 만나게 되었다. 특허거래전문관은 펀진의 특허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공공연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시중은행의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을 연계해 주었다. 이를 통해 펀진은 이전 받은 특허 기술과 자체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성공하면서 매출도 3배나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기술 이전·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담, 적정 수요·공급 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6년부터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들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은 1,063건, 기술료는 868.9억원이며,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1.7백만원이다. 작년에는 1건당 평균 기술료가 1.1억원으로, 전문관 1명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의 평균 기술료는 25.4억원에 이른다.

특허거래전문관은 수도권 5명, 충청권 2명, 영남권 1명, 호남권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총 17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 개방특허의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들이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특허 거래·이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업종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특허 거래·이전 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간 교류의 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거래전문관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및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진 배경

-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시작한 '06년 이후 거래된 지식재산권과 기술료는 953건과 826.4억원이며,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6.7백만원임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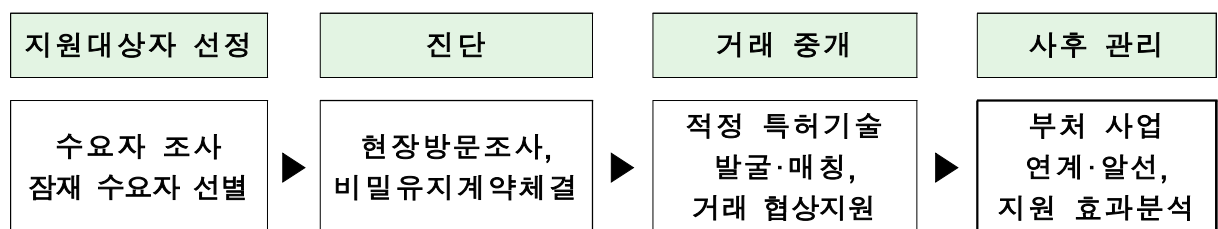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인원(명)	2	4	4	4	4	5	6	6	8	9	-
지식재산권(건)	34	24	36	71	105	80	150	153	181	229	1,063
기술료(억원)	295	13.95	7	59.2	78.3	80	142	104	128	253.5	868.9

□ 주요 내용

-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적정 수요·공급 특허기술 매칭,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특허거래전문관 연계를 통해 특허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개방특허 매칭, 이전 협상 등 지원

< 특허거래전문관 지원절차 >



□ 소요 예산 : ('15) 630 → ('16) 1,190백만원(증 560백만원, 88.8%)

- (인력 증원) ('15) 9명 → ('16) 17명(8명 증원)

□ 기대 효과

-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거래·이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